



12.29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0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현장조사 일정 개시 전 국토교통부 관계자로부터 조사개괄 브리핑을 듣고 있다. /뉴스스

“참사 경위 밝히자”... 국회 제주항공 참사 특위 현장조사

국회 12·29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단이 유가족을 동반한 참사 현장 조사에 나섰다.

조사에 동행한 유가족들은 상황실과 관제탑 등에 배치됐던 관계자들이 참사 당일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보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는 20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국정조사 특위 현장 방문 일정을 진행했다.

현장방문 일정에는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등 특위 위원 18명을 비롯해 이진철 부산지방항공청장 등 국토부 관계자와 유가족들이 참여했다.

특위는 이날 일정에 대한 개괄 설명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위원과 국토교통부 관계자, 유가족이 포함된 3개 조로 나뉘진 뒤 관제탑과 상황실 현장 조사에 나섰다. 관제탑에서는 관제탑장 주재 관제시스템 설명과 함께 특위·유가족의 질의응답이 오고갔다.

사고 당시 관제탑의 역할 설명, 철새떼 출몰 안내 적절성, 여객기의 랜딩기어 작

무안공항 상황·관제실 방문...관제 시스템 확인 유가족, 관계자 적절 근무 여부 따지면서 분통 오후 활주로는는 조류충돌예방활동 내역 파악 사고 잔해 보관 확인 뒤 유가족 간담회도 개최

동 육안 확인, 복항 시도에 대한 관제탑 차원의 개입, 레이더를 통한 조류 탐지 여부 등 질문이 이어졌다.

관제탑장은 참사 당일 공항으로부터 7 km 떨어진 곳에서 조류 활동이 감지됐었다는 설명과 함께 ‘복항 당시 기장에게 기체 운영 우선권이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제사의 여객기 랜딩기어 작동 육안 확인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기장이 랜딩기어 작동과 관련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관제사가 답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부연설명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들은 관제탑에서 나온 답변에 ‘관제탑이 나서 적극적으로 현장 조지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기장은 숨졌는데 관제사까지 합구하는 것이냐’라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같은 시각 상황실에서는 공항 상황실장 주재 사고 경위 브리핑이 진행됐다. 상황실은 참사 당일 오전 8시58분 메이데이 선언을 4분여 지난 오전 9시2분께야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제탑과 공항 소방대 사이 우선 소통이 이뤄지면서 상황실로의 상황 전파가 뒤늦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특위는 이날 오후 참사 현장인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를 중심으로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기동취재부

광주·전남 통합선거관 꿈틀 예비 주자들 ‘광폭행보’ 분주

시·도 경계 넘나들며 얼굴·이름 알리기 특별법 발의 전 단계... 조심스런 반응도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기정사실하 속 6월 통합단체장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예비후보들의 행보가 시·도간 경계를 넘나드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전남지사 예비후보들은 광주에서, 광주시장 예비후보들은 전남에서 각각 자신의 얼굴과 이름 알리기에 나서는 등 행정통합 이슈를 매개로 점점을 넓혀가는 모양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9일 광주 시청 무등홀에서 민간단체가 주최한 행정통합 토론회에 참석, 광주시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현직 도지사인 그가 광주시청사에서 광주시민을 상대로 행정통합을 설명하는 장면은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도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강 시장 역시 조만간 전남도청에서 전남도민을 상대로 같은 형식의 행정통합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통합단체장 선거에 도전하는 현직 시·도지사에게는 행정통합의 추진 배경과 당위성을 설명함과 동시에 자신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라고 볼 수 있다.

전남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신정훈 의원과 주철현 의원도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 반경을 확장하고 있다.

나주와 화순을 지역구로 둔 신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던 지난 11일 전남대 컨벤션홀에서 열린 광주·전남행정통합 시민대토론회에 참석, 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지난 13일에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다. 다음 날인 14일에는 광주지역 한 신문이 주최한 행정통합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기도 했다.

신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으로서의 행보”라며 “아직 통합이

성사된 것은 아닌 만큼 예비후보로서의 타 지역 행보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도지사 후보군 중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주 의원은 최근 광주 시내 곳곳에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적극 환영한다. 이재명 정부 통 큰 지원을 대대약의 계기로’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이 현수막에는 주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도 담겨 있다.

주 의원은 앞서 광주에서 열린 민행배 국회의원회와 김병내 남구청장의 출판기념회에도 참석했다.

주 의원은 “행정통합을 찬성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며 “행정통합 확정 전 광주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담양·함평·영광·장성 출신 국회의원이자 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군인 이개호 의원은 최근 광주에서 열린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 등 서서히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 의원은 “특별법안이 제출되는 시점에 맞춰 본격적 행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민행배 의원 측은 우선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한 지역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통해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알리고, 민 의원의 인지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전광훈 기자

Goheung Spaceship Terminal

제16회 고흡 우주항공축제

2026.5.2. (토) - 5.5. (화)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일원

주최/주관 고흡군 고흡군축제위원회

지구문명에서
우주문명으로